

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
등록일자	2017. 10. .
결재일자	2017. 10. .
공개구분	공개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당관	사무처장	의 장
홍준형	김시영	이수영	정명희	정명희
협 조	김현수			

- 충남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 청 남 도 의 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 평	1
--------------	---

II. 주요 논의내용	2
-------------------	---

① 주제발표(2명)	2
------------------	---

② 지정토론(3명)	3
------------------	---

② 청중토론(5명)	4
------------------	---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	---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

[부 록]

□ 토론회 사진	9
----------------	---

□ 언론보도 현황	10
-----------------	----

-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4차 산업혁명,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충남 농업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사 개요 》

- 일사장소 : ' 17. 10. 13. (금), 14:00~17:00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참 석 : 15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방안」

I 총 평

- 충남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긍·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관련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능동적 대안마련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쌍방향 정보공유,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및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특히 고령농, 중·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 및 생명자원으로서 농업의 가치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2인)

① 정창용 대표(풍일농장)

- 양돈농장인 풍일농장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및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선진화의 현실적 대안은 ICT 등을 활용한 정밀농업, 스마트팜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ICT 등을 활용한 양질의 관련 정보인 빅데이터의 세밀한 축적 및 관련 분석기술의 제공 및 활용방안이 중요함
- 농어촌 인구감소 및 절대 다수의 고령농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마련이 중요함
 - 전문가 집단의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분석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컨설팅 제공 방안
 - 구체적으로 천안시 통합 관제시스템 모델화 시범사업(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처럼,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다수의 관련 농장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정남수 교수(공주대)

- 4차 산업혁명이 농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 고찰 필요
 - 유튜브(youtube)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누구나 정보제공, 제공된 정보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은 기존 혁명과 달리 다품종 소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농업 소외현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성장의 한계로 농촌성장의 상대적 가능성 증가

- 그러나, 기술변화·병해충·기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농업 분야에서는 상품표준화의 변동가능성이 큼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스와트(SWOT) 분석 결과, 변화의 시기로 인한 공공주도의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창조의 시기도래로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 필요
- 구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 즉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 집약산업으로의 정책관점의 변화가 필요
-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ICT,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농어촌에 적용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

② 지정토론 (4인)

① 홍승지 교수(충남대)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적 요소들이 농업·농촌 접목될 때, 일반적 및 유형별 표준화 기초기술개발의 필요성에 공감
- 다만, 이러한 기술표준화와 관련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② 이관률 박사(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소외 가능성에 정책적 고려 필요
- 농민 대부분은 고령농, 중·소농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임
-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생산농정에서 과학농정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생명자원으로서 농업의 가치에 주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에 주목할 필요 있음

③ 최택용 과장(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내 스마트 농업팀을 신설하고, 물적 시설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공사중
- 농촌진흥청, 도(道) 친환경농산과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술, 기계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확대할 예정임
- 현 단계에서 농업분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7농가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중임이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중임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질적 성과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③ 청중토론 (5인)

- 분뇨·악취 처리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필요함

[의견: 지역주민 1]

⇒ 다양한 과학적 처리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는 것이 중요함

[답변: 정남수 교수]

- 요즘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센터 등을 통한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관리자 등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 등 농업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음.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풍일농장 등에서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의견: 지역주민 2]

⇒ 풍일농장을 일반인에게 교육 및 홍보농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려움.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분석 등 기술혁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육시설 자체의 현대화 등에 농장의 외적 요소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음.

[답변: 정창용 대표]

⇒ 전남 구례의 자연드림 복합시설처럼 생산, 가공,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및 홍보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답변: 좌장 유병국 의원]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과 관련하여, 우선 농업관련 교육의 목적을 생산중심에서 공유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분야 신(新)직업군으로 스마트팜 관리자 이외에 지역의 문화, 생태 등과 관련된 직업군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소농 및 고령농 등이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 또한 강구하여야 함

[답변: 정남수 교수]

○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 축적 등은 개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왜 이에 대한 대가 없이 공유하여야 하는가?

[질의: 지역주민 3]

⇒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만이 생산성·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유함으로써 가치가 증대됨. 또한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고가의 장비구입을 위해 자부담 비용이 크기는 하나, 연구목적 또는 데이터 공유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적 기반 확충 또한 가능함. 따라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함

[답변: 정창용 대표]

○ 스마트팜 등 기술혁신으로 농업관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지역주민 4]

⇒ 기존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전통적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농업에 도입됨으로써 데이터 축적, 관리, 분석 및 컨설팅 등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증대됨. 또한 생명, 생태, 지역, 문화 등 농업 및 농촌에 기반한 다양한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답변: 이관률 박사, 정남수 교수]

- 충남도 스마트 농업정책 관련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산과장의 관련 정책 등에 의견개진을 부탁함

[질의: 좌장 유병국 의원]

- ⇒ ① 현재 충남도는 980ha를 대상으로 현대화, 스마트화 관련 사업을 시행중임. 또한 '17년 현재 부여에 27ha 규모의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중이나, 참여농가의 부족 등 기존 시설농가와의 융합문제 등에 대안을 모색 중임
- ② 현재 농업 관련 데이터 수집은 기초단계이며, 아직 분석·공유·활용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함
- ③ 그러나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ICT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목·분석·연구하고,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에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답변: 박지흥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

- 현재까지 충남도의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4차 산업혁명이 농업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긍정·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농촌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유병국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필요
 -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효율성 증대, 고령화·농촌인구 감소로 인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및 청년실업의 대안가능성 등 4차 산업혁명이 농촌·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긍정적 요인에 입각한 정책입안도 중요하나,
 - 고령농, 중·소농이 대다수인 농촌 현실에서 사회변화의 적응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이 시장개방·고령화·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또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대농, 중·소농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2.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쌍방향 정보제공 및 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입안 방안 마련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공공주도의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 ICT 기반 시설, 관련 기술, 정보의 공유 등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쌍방향 제공을 통한 진행 중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원)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8건)	비고
신 문 보 도		3건	
1	중 앙 매 일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 고민	
2	금 강 일 보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토론회	
3	서 울 일 보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인터넷뉴스		5건	
4	충 청 신 문	충남도의회,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 고민	
5	서 울 일 보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6	중 도 일 보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	
7	파 워 뉴 스	유병국 도의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8	뉴 스 천 지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 고민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풀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제고해야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산·학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스템, 생산·환경관리, 팜매니저 등 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천수 기자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토론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천안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유병국 의원(천안4)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과 다중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부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농업분야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

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진서기자

충남도의회,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 고민

유병국 의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열어...지향점 제시

지정임 기자 jji2516@dailycc.net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높여야 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산·학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스템, 생산·환경관리, 팜매니저 등 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추적 및 활용을 통해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천안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유병국 의원(천안4)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과 다중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부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농업분야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수 공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충남도의회,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임진서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나섰다.

지난 13일 충남도의회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제고해야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산·학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스템, 생산·환경관리, 판매니저 등 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진서기자 news@seoulilbo.com

중도일보

2017년 10월 14일 (토)
종합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

유병국 의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FTA 등 농업시장 개방과 농촌 진단

맹창호 기자



충남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가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병국 의원(천안4)을 좌장으로 진행된 의정 토론회는 지구촌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좌장 제언을 통해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야 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서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축산물 생산 관련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축적과 활용으로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 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유병국 도의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제고해야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산·학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스템, 생산·환경관리, 팜매니저 등 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양필중 기자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제고해야한다”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산·학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농업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스템, 생산·환경관리, 팜매니저 등 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ICT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재난방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ad 정 교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